
당신이 잠든 밤에

—이기호의 소설들—

한혜경 · 문학평론가,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

1. 당신이 잠든 밤에

지난여름, 맑은 날을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 같은 비에 도로가 침수되고 산이 무너져 아파트와 주택들을 덮쳤다.

안전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 지난밤 사이 일어났던 재해의 현장을 본다. 뉴스를 보기 전엔 폭우가 잠잠해져 간간히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뒤숭숭하던 간밤의 천둥소리를 단지 꿈으로만 치부’할 수도 있으리라.〈당신이 잠든 밤에〉중)

당신이 편안하게 잠든 밤에 어떤 이는 밀려오는 토사와 급류에 휘말려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밤새 지하 방에 차오르는 물을 퍼내거나 무너진 집 앞에 망연히 서 있었을 수도 있다. 비단 폭우 때문이 아니라도 모든 이가 잠자고 있는 한밤에 깨어 있는 자들이 있다. 실연의 아픔에 꼬박 뜯는으로 밤을 지새우는 자도 있을 것이고 시험을 앞두고 밤을 새워 공부하는 이, 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이나 24시간 상점, 공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소설가는 어떤 사람들을 상상할까?

1972년생으로 1999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기호는 ‘이렇다 할 기술도, 학력도, 연고도 없는 지방 상경 청년들’과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조한다. 이른바 ‘스펙’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조건을 갖춰도 취업이 어려운 요즘, 이런 청년들의 삶이 순조로울 리 없다는 것에는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으리라. 이기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습기도 하면서 슬프다. 모두들 잠든 밤에 이 인물들이 깨어 있는 사연을 들어 보자.

2. 외로운 자들은 국기 게양대에 매달려 있다

〈당신이 잠든 밤에〉(2004)는 지방에서 올라와 고시원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두 청년 시봉과 진만의 이야기이다. ‘이렇다 할 기술도, 학력도, 연고도 없는 지방 상경 청년들이 가장 만만하게’ 할 수 있는 편의점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몰래 눈을 붙이다가 잠장한데 들켜 해고된다.

3개월치 선불을 내고 들어간 고시원 생활이 사흘 후면 끝인 절박한 상황에서, 이들이 생각해 낸 것은 자해 공갈이다. 하지만 평소 ‘겁 많고 병약하기 그지없는’ 이들이 자해 공갈을 계획하는 모습은 씁쓸한 웃음을 자아낸다.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어 보이는 이 계획은 예상대로 실패하는데, 바로 그 실패 과정이 소설의 줄거리가 된다.

첫 장면은 비 내리는 여름밤 새벽 한 시, 방범 초소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자동차를 기다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틀림없지?” “틀림없어.” 서로 확인하는 모습에서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무모하고 불확실한가를 역으로 느끼게 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복병’이 다양한 형태로 찾아온다. 보안 업체 직원에게 불심 검문을 당하며, 자동차에 부딪치려고 달려가는 도중에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고, 도움을 청하는 소녀를 따라갔다가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하기까지 한다.

자동차 범퍼 근처에도 가 보지 못했는데 이미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자, 시봉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더 망가뜨려 볼까?”라며 자신의 발목을 벽돌로 내리친다.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해 묘사하고 있는 이 삽화는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세상을 대비시킨다. 곧 시봉은 복사빠가 커다랗게 부어오르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사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할 뿐이다.

시봉에 대한 연민이 고조되는 부분이지만, 작가는 엉뚱한 상상력으로 연민의 농도를 묶게 만든다.

“살 속에 물이 가득 담긴 것 같지 않아?” “……” “이렇게 온 몸이 다 부어오르면 어떻게 될까? 떡대가 정말 좋아 보이겠지……? 미쉐린 타이어 선전하는 놈처럼 말이야.” “미친 놈……. 넌, 정말 이상한 새끼야…….” “뭐가?” “남한테 불쌍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난 놈 같다고.” 시봉은 말없이 진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야 한번이라도 더 나를 볼 거 아니야. …… 말도 걸어오고 …… 너도 처음엔 그래서 말을 걸어왔잖아…….”

- 〈당신이 잠든 밤에〉

불쌍하게 보임으로써 타인의 관심을 끈다는 시봉의 이야기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의 아픔을 담고 있으면서 독특한 상상력으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딱히 되돌아갈 곳’이 없는 처지임에도 세상에 대한 원망이나 비관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 대신 자신처럼 상처를 지닌 자들을 ‘모르는 척’하지 않음으로써 ‘상처 위에 상처를 덧대면서 상처를 잇는 친구’가 되어 이 세상의 고통품을 견디고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 이야기 〈국기 게양대 로맨스 -당신이 잠든 밤에2〉(2006)에는 시봉보다 더 엉뚱한 인물이 등장한다. 국기 게양대를 사랑하는 남자다.

첫 이야기에서 자해 공갈에 실패한 시봉은 국기 게양대에 내걸린 국기를 떼다 파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그런데 국기를 떼러 게양대에 올라간 어느 밤, 옆 게양대를 오르는 남자를 만난다. 잔뜩 긴장한 시봉에 비해 그는 시종일관 밝은 태도로 자신도 근처 고시원에서 살고 있으며 사실은 국기 게양대를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사내가 나타난다. 깡마르고 넥타이를 맨 30대 중반의 사내는 사라진 아내를 찾으러 다니는 중이다. 빛보증을 선 뒤 말을 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아내가 유일하게 대화를 나눈 대상이 국기 게양대였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았더니 사라졌다는 것이다. 국기 게양대를 사랑하는 남자는 이 사내에게도 국기 게양대를 사랑하기를 권한다. “그렇게라도 외로움을 이겨 내셔야죠.”라고 하면서, 곧 국기 게양대는 ‘외로운 사람들을 껴안아 주려고’ 존재한다는 것이다. 달리 방법이 없는 넥타이 사내도 국기 게양대를 사랑해 보기로 마음먹는다.

그렇게 해서 온 동네가 ‘어둠 속에 괴괴히 잠들어 있는데’ 세 남자가 ‘말없이 가만히’ 국기 게양대에 매달려 있는 풍경은 처연하다. 급기야 넥타이 사내가 울음을 터뜨리고 내내 울적하던 시봉 역시 눈물을 흘리지만 그 아래 세상은 이들의 아픔과 무관하다. 게양대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치는 신문 배달부,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가는 노파, 새벽이 되어 가는데 ‘잠처럼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오 미터 상공에 누군가 매달려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시봉은 사실 국기를 떼러 올라간 것이었으므로 옆의 남자처럼 국기 게양대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왜 계속 매달려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없어 하면서 ‘왠지, 그냥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느낀다. 이는 옆의 남자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라도 살아야죠.”라며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봉에게 바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이들 사이에는 ‘당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넥타이 사내가 울음을 터뜨리자 같이 눈

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다.

국기 계양대를 껴안고 있노라면 국기 계양대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는 것을 느낀다는 남자나 얘기할 대상이 없어 국기 계양대와 대화를 나누던 벡타이 사내의 아내, 아내를 잃고 괴로워하다가 국기 계양대를 사랑해 보기로 하는 벡타이 사내. 이들은 모두 고시원과 반지하 월세방에 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운 자들이다. 달리 마음을 붙일 데가 없어 국기 계양대에 의지해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는 외로운 자들의 절박함을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3. 갈팡질팡한 삶,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소설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는 작가는 무슨 생각으로 소설을 쓰는 걸까? 달리 말해 그의 소설관은 무엇일까?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털 줄 알았지〉(2006) 도입부에 다음과 같은 소설관이 피력되어 있다. 주인공 ‘나’는 ‘근대 소설은 우연으로 시작해 필연으로 끝나는 장르’라고 학교에서 배웠으나 이 논리가 늘 버거웠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나는 그 논리가 버거워, 종종 우연으로 소설을 끝내 버리곤 했다. 며칠 밤을 지새우며 내적 필연성으로 주인공을 몰고 가기 위해 용을 쓰다가 그만, 제풀에 지쳐 에라이, 땡! 이쯤에서 주인공 자살(혹은 죽사)! 뭐 이런 식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학부 시절 은사님들께 “자넨 기본기가 덜 된 친구구먼”이란 소릴 자주 들었고, 아울러 낙제에 가까운 학점까지 덤으로 받곤 했다. 다시 말해 논리박약, 의지부족.

그때마다 나는 좀 억울했다. 하지만요, 선생님. 세상 사는 게 언제나 필연적이진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더 많

많아요? 꼭 그런 소설들만 써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 <갈광질광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즉 주인공은 느닷없이 찾아오는 우연 앞에서 ‘늘 갈광질광 해마다가 겨우 간신히 그 우연들에서 벗어나곤’ 했으므로 소설 역시 그러한 ‘갈광질광함’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성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다거나 신념을 안고 살아간다거나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이야기가만 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주인공의 표현을 빌리면, “소설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만큼 나온다고. 나는 에라이, 뽕! 만큼 살았으니, 에라이, 뽕! 같은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겐 리얼리즘이었으니까.”

그가 소설을 쓰게 된 계기도 특별한 것이 없다. 달리 할 일이 없어서, 혹은 우연히 쓰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소설, 혹은 문학에 숭고한 의미를 부여해 온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가령, “작가라는 이름은 황홀한 빛이고 분열하는 어둠이고 빛과 어둠 사이의 그 모두였다.”(박범신, <그해 내린 눈 지금 어디에>)와 같은 비장한 토로와도 거리가 멀지만, 반대로 1990년대 신세대 작가들이 ‘유희적 글쓰기’, ‘작가의 죽음’을 선언하던 것처럼 강한 어조로 새로운 소설을 주창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기존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 온 것들을 가볍게 넘어가고 있을 뿐이다.

생활 때문에 소설 쓰기를 포기하는 소설가도 등장한다. <수인(囚人)>(2005)의 주인공은 소설가로 등단했으나 그 이후 단 한 편의 소설도 완성하지 못한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 대신 다른 사람의 자서전 대필을 하면서도 자조적이거나 비관적이지 않으며, 단지 돈벌이의 하나로서 글쓰기 노동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인다. 곧 소설 쓰기는 숭고한 예술 작업이며 문학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엄숙한 각오와는 거리가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갈팡질팡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작가는 쉽게 소설을 포기하지 않는다. 생활비를 버느라 소설을 쓰지 못할 때 주인공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것은 4년 전에 출간된 자신의 소설이 아직도 대형 서점 구석에 꽂혀 있다는 사실이다. 소설이란 ‘전구나 라디오 같은 발명품 아니냐’는 심판관의 말에 수긍하지 않음으로써 주인공은 소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웅변한다. 소설이란 팔리지 않더라도 계속 남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설을 진짜 소설처럼 받아들이’고 있어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재미난 사람’으로 간주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묵묵히 제 갈 길을 간다.

이렇게 볼 때, 이기호의 소설은 소설의 사명을 진지하게 논하고 논리적으로 신념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설이란 계속 존재하는 것이며 또 존재해야 함을 역설하는 이야기라 하겠다. 갈팡질팡한 우리의 삶과 모두들 잠든 사이에 벌어지는 사연들에 귀 기울이면서, 그래서 그의 소설을 읽다 보면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웬지 미안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설은 꼭 존재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